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1호

발행일 : 2021.05.09.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주님 안에 살다 보니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임을 알았고
또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중에 있습니다.



최영주 집사님



<간증>

최은주 집사

2021년도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주시고 벌써 살아온 인생 5학년 4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서위원회로부터 간증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아찔하고 힘든 세월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기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주님 안에 살다 보니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임을 알았고 또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중에 있습니다.

저는 7남매의 여섯 번째로 태어나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상송배와 토속신앙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전도나 교회를 접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집와서 보니 너무 가난한 집안에 홀 시어머님께서 근근히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셨고 신앙생활 중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교회의 권유를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력이 약한 남편과 가난한 살림과 여러 가지 찌든 환경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겠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지만 믿음은 없었는데 삶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세 번째 교회인 당진순복음교회는 25년 전에 출석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컷전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5학년에 접어들어 갯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수많은 체험 속에서 가난했지만 돈보다는 믿음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지금의 장막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보증금의 월 10만원의 단칸방에 살다가 다락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다락방이 좋아서 잠도 안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귀한 딸 은혜를 출산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17평의 빌라로 이사하면서 20평의 주공아파트에서 11년을 살았으며 5년 전에 지금 사는 정우빌라 25평으로 장막집을 마련하기까지는 누가 보아도 주님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억배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 삼을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주셨음에 감사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과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은혜란 단어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아예 물질이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꼭 실천하고 싶은 물질에 대한 물질관(로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일조와 정한 헌금을 철저히 하는걸 기본으로 삼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적금보다는 주님을 위한 적금을 들어서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3년 만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매체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감동이 있어 월드비전의 후원자로서 월 2만원씩 10년 작성하여 6년의 세월을 왔으며, 네 번째로 돈을 꾸어주기보다 선물처럼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꼭 필요한 이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주고 싶은 감동이 있어 200만원의 돈을 건네준 일도 실천했었습니다. 나름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은 최대한 줄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선함으로 보셨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의 장막을 축복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늘 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1을 드리면 10을 주시고 10을 드리면 100을 주시며 100을 드리면 1,000을 주시는 주님의 법칙에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심었기에 하나도 헛됨이 없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제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장막 집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란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그때부터 장막 집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물질 없을 때마다 구함으로 채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심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 드릴까? 때론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그만두면 성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서 어디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광이의 대학 4년동안 한 학기도 등록금 없이 그저 용돈만 주면서 대학 생활을 마친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주셨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여 받게 하였고 이모저모로 물질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장막 집도 아이들 성장 과정도 가정생활도 여유롭지 못하지만 없는 중에 드리는 어느 과부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저의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혼을 위해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의 러닝메이트로 두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지금의 상황이 낙심되기도 하지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조금 늦더라도 꼭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 중에 있으니 꼭 열

매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최은주는 기도해야 산다”라는 외침과 함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소망을 꼭 이루립니다.

23년이 지난 얘기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남편으로 인해 낙심하여 새벽기도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남편의 죽음을 보여주셨기에 그 길로 눈을 뜨자마자 뛰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내게 어떤 환란이 와도 난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 새벽 단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남편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요. 그런 끈기있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고 사람인지라 가끔은 낙심되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기에.....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젠 인생과 삶의 어두운 터널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무르익음이 있어 빛 되신 주님을 향한 밝은 빛이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지탱할 수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성도들이 있기에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새로운 가족 며느리(유혜진권찰), 손녀(다운) 투 플러스의 보물같은 선물을 주셔서 가족 수가 늘어났지만 시어머니라는.... 할머니라는 명칭 아래 5학년 4반에 걸맞는 인생과 삶이 되고 꼭 행복한 가정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김성령청년



성도 알아가기

김성령 청년

1. 자기소개 멋지게 해주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당진순복음교회의 해피 해피한 바이러스를 내뿜고 싶은 김성령 청년입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미에 있는 레미콘/아스콘 회사에서 경리 및 총무 등 사무직 일을 맡고 있습니다!

3. 최근에 자신의 신변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신변이 몸과 몸의 주위라는 뜻인데 뭐... 저에게 가장 큰 핫 이슈인 변화는 바로바로 제가 NEW CAR를 한 대 장만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차를 산 뒤로 계속 어디론가 가고 싶고 바람 쐬러 드라이브도 가고 싶어요~

4. 자신의 신앙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점 만점에 45점 정도? 저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자리들이 많지만 때로는 맡고 있는 자리에 설 때에 자만한 적도 있고 제 기분대로 합리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부끄럽지만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해봐서 이번 년도 목표 중 성경 일독과 서적을 읽으면서 지혜도 쌓고 점수도 올려봐야겠죠? ㅎㅎㅎ

5. 요즘 수저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등등요.

자신을 수저로 빗대어 말한다면?

금수저이고 싶으나 은으로 도금한 플라스틱 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자만할까 염려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 등으로 금수저, 은수저 단어처럼 등급을 매기지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깐 지난 수요일 예배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베풀면서 천국에 우리만의 보화를 쌓아봅시다~!

6. 딸은 어머니를 닮지요. 자신은 어머니와 무엇이 닮고 무엇이 다른가요?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누가 봐도 부녀지간인 게 티가 날 정도로 엄마 보단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행동이나 성격 등 내적으로는 엄마를 더 많이 닮았지요. 언젠가 한번 오빠랑 엄마 생신 선물로 옷을 선물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른 옷으로 바뀌오는 일이 있어서 그 후로는 대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7. 우리가족 자랑 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빛을 지며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요즘 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축복받은 가정이지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심방 때 저희 가족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가족들 모두 다 성전 밭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잘 오나 봅니다 :D

아빠는 좋아하는 배드민턴 운동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배드민턴을 못하는 날에는 시내 한 바퀴를 걸으면서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집에서는 자랑 많이 투닥 투닥 하지만 무뚝뚝한 성격이었다면 너무 심심했을 것 같아요~ 또, 술, 담배 안 하시는 아빠라 너무나 좋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엄마는 매번 맛있는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시는데 저만 알고 싶은 손맛이랄까요? ㅎㅎㅎ 그리고 제 기분도 잘 캐치해 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빠는 신앙으로나 다른 면으로나 배울 점도 많고 모든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답니다. 가끔 서너 번씩 동생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오빠로서 많이 듬직하고 잘 챙겨주면서 남다른 남매의 우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표현은 못 하지만 이 자릴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8.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미래의 배우자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도 소원 기도 제목과 새로운 직장을 기도하고 있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요즘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9. 결혼에 대한 꿈을 품고 있나요? 있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자녀는 몇 명쯤 낳고 싶나요?

당연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지만...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8번 대답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항상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배경으로 성장해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품도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자리관리도 열심히 하고 키가 큰... (미래 자녀들을 위해) ㅎㅎㅎㅎ

그리고 자녀는 돈과 체력만 충분하다면 3-4명 정도 낳고 싶습니다~

10. 자신의 성격을 진단해 주세요.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척 소심하고 부끄럼도 많은 성격이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서 눈치도 많이 보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에 강.약이 심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티를 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가끔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도 많이 줬을 텐데 항상 고쳐야 하는 성격인 걸 알면서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항상 말을 곱씹으면서 생각해보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로 좋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보기보단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엄청 많아서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성격만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죠? ㅎㅎㅎ

11. 교회 울동 팀에서 그리고 찬양단에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주님의 예배 일꾼들이 많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친구들, 학교, 학원 등 많은 약속들과 시험,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예배, 모임 등)을 소홀히 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더 보여주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이해를 해 줄 것이고 시험이 와도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면 더 많은 지혜들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젠 알아서 제가 교회 가는 시간들을 피해서 약속을 잡아주고 늦더라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ㅎㅎㅎㅎ 거의 다 모태신앙 일텐데 우리들로 하여금 모태신앙의 이미지가 못된 신앙으로 인식되지 않게 크리스천인 것을 당당하게 표현해봅시다~!

12. 성형외과 쿠폰이 생겼어요. 한곳을 만질 수 있는 쿠폰이에요.

신체 부위 중 어디에 그 쿠폰을 쓰겠어요?

저는 무섭고 아플까 봐 도전을 안 하고 있는데 안 아프고 부작용만 없다는 보장이 있다면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그란 얼굴형을 다듬거나 지방 흡입 또는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싶네요.

13. 내 인생 25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때그때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후회된다고 기억나는 일은 없지만 어렸을 때 매우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던 것과 게을렀던 성격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식을 하게 됐는데 회식 자리에서 딱 잘라서 술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거부하지 못해 입에 대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끝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영영 울며 회개기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얘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에겐 권유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들 만날 때도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게을렀던 성격으로 인해 꼭 집을 만한 취미생활도 없고 장래에 대한 꿈, 포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운동의 재미를 일찍 알았더 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 갑자기 1억이 생겼어요. 사용계획을 되도록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세요.

일단 먼저 십일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행사 때마다 교회에 찬조 헌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빚들을 다 없애고 강원도 쪽에 펜션 하나 마련하고 아빠와 엄마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아빠께는 신차와 엄마께는 맘껏 쇼핑할 수 있도록 한도 없는 카드를~ 오빠에겐 사업하고 싶은 사업장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고 남은 돈으로는 저의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돈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신이 나네요!!

15.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해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문득 3월 말에서 4월 초에 평일보단 주말이 더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내년에는 '내가 맡고 있는 자리 하나쯤은 내려놔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의 생각을 다 읽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며 4월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접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6. 지난 해 부모님 생신에 딸로서 어떻게 해주었나요?

아빠께는 지금 교회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선물로 해드렸고요. 엄마께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여서 용돈과 직접 미역국을 끓여 드렸습니다! (물론 오빠와 함께 했습니다. ^_^)

17. 김 성령 세 글자로 삼행시 부탁해요.

김 : 김성령 청년이 다니는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 : 성실한 일꾼의 모습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따름으로

령 : 영(령)생을 얻었다던데~ 이 얘기 들어봤어?

18. 나는 (우리교회) 에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생애 첫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19.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쳐야 할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고쳐야 할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
의 마음이 식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손가락질, 비난 속에서도 당
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더 좋은 축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각자의 성격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말씀 순종하며 목사님께서 항
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의 모습을 반이라도 닮아간다면!

추후에는 행복하고 더 좋은 당진순복음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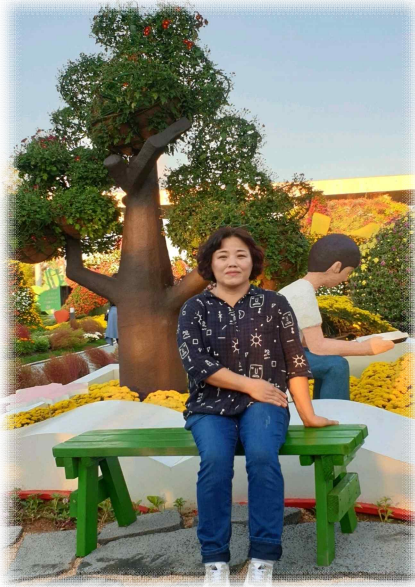
20. 자신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말씀 해 주세요.

1.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깐
2. 불평불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3. 성전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웃으십시오!

이경애 집사



코로나 19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일상을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야외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예배 하면 여자 축구를 빼 놓을 수 없고 여자 축구 하면 씩씩한 이경애 집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전.후반 풀 타임을 뛰어도 지치지 않고 한 게임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리 교회의 가장 건강한 집사님이시죠. 이경애 집사님의 신앙도 이와 같이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교회 게시판 꾸미기 등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않죠. 볼 때마다 모든 일에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집사님의 열심을 보시고 콩깍지 김희주 집사님과 등직한 두 아들 상윤, 상우 그리고 예쁜 딸 지아까지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듯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평범한 생활이 어렵지만 이경애 집사님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권찰일기>

2021년 3월10일 수요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 등원 시간이 8시 28분~

버스는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

민준, 민재는 어제 늦게 자더니 아침에 눈 뜨는 걸 어려워한다.

아침부터 울구불구 팔짝팔짝 뛰고 난리도 아니다~

우는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어젯밤 셋팅 해 놓은 옷을 주섬주섬 입힌다.

바지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청바지를 입히자 민재는 더러운 바지 입힌다고 차라리 내복을 입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한다.

내복이 더 창피한 거라고 달래고 달래도 안 통해서 민트색 면바지를 주었다.

이제야 맘에 든다며 그걸 입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한다.

준비를 하고 씨리얼을 주었다.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나의 아들들..... 민준이는 체크를 달라하고 민재는 코코볼을 달라고 한다.

둘 다 초코인 것을.....

아침부터 나도 모르게 "대충 먹어, 빨리 먹어" 소리를 20번 이상 했다..

버스 타러 나가는 길 성민재가 운다. 자기는 엄마랑 '아멘'에 가야겠단다.

이번 한번이라면 어린이집 안 보내고 교회에 가겠지만 울어서 한번 빠지면 계속 울 거 같았다. 혼도 내고 화도 내 보았지만 버티고 안간다고 드러누워 울고불고~

버스 안탄다고 우는 민재 덕에 나는 결국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아침부터 기운을 쏙 뺀 나는 집으로 가 아이들이 어지러 놓은 장난감을 치우고 커피와 치즈케익을 먹고 수요일예배를 가기 위해 준비한다. 준비를 마치고 차에 갔다. 안경을 두고 온 나는 다시 집으로 가서 안경을 챙기고 다시 차에 와 시동을 걸었다.

설악가든을 넘어설 때쯤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다가 흘렸나 집에 두고 왔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아직 적응 기간이고 아침에 울고 간 민재 때문에 어린이집
에서 연락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또다시 차를 돌렸다.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올라오는 순간 계속 땅만 쳐다보고 올라왔다.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들여다봤다.
거실 한 가운데에 딱 놓여있는 핸드폰을 보고 안심했다
다시 휴대폰을 들고 차로 향했다. 오늘따라 신호도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부랴부랴 교회에 도착했다. 딱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설교를 들었
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똑같은 죄
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예배가 끝나고 혼자 밥 먹기 싫었던 나는 언니네 집에 갔다.
언니는 나에게 오동통 라면을 끓여 주었다. 그리고 집에 와 집안일
을 하다 보니 아이들 하원 시간이 다가왔다.
아이들이 오고 오늘은 민준이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다.
학습지 선생님이 민준이 학습 태도가 많이 산만해졌다고 하신다.
민준이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불안해 하더니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 또 마음이 아프다. 민준이랑 더욱 많은 대화를 해야겠
다고 생각했다.
저녁 먹이고 씻기고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갔다. 잠은 안자고 계속
종알거리는 두 아이가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였다.

조은혜 권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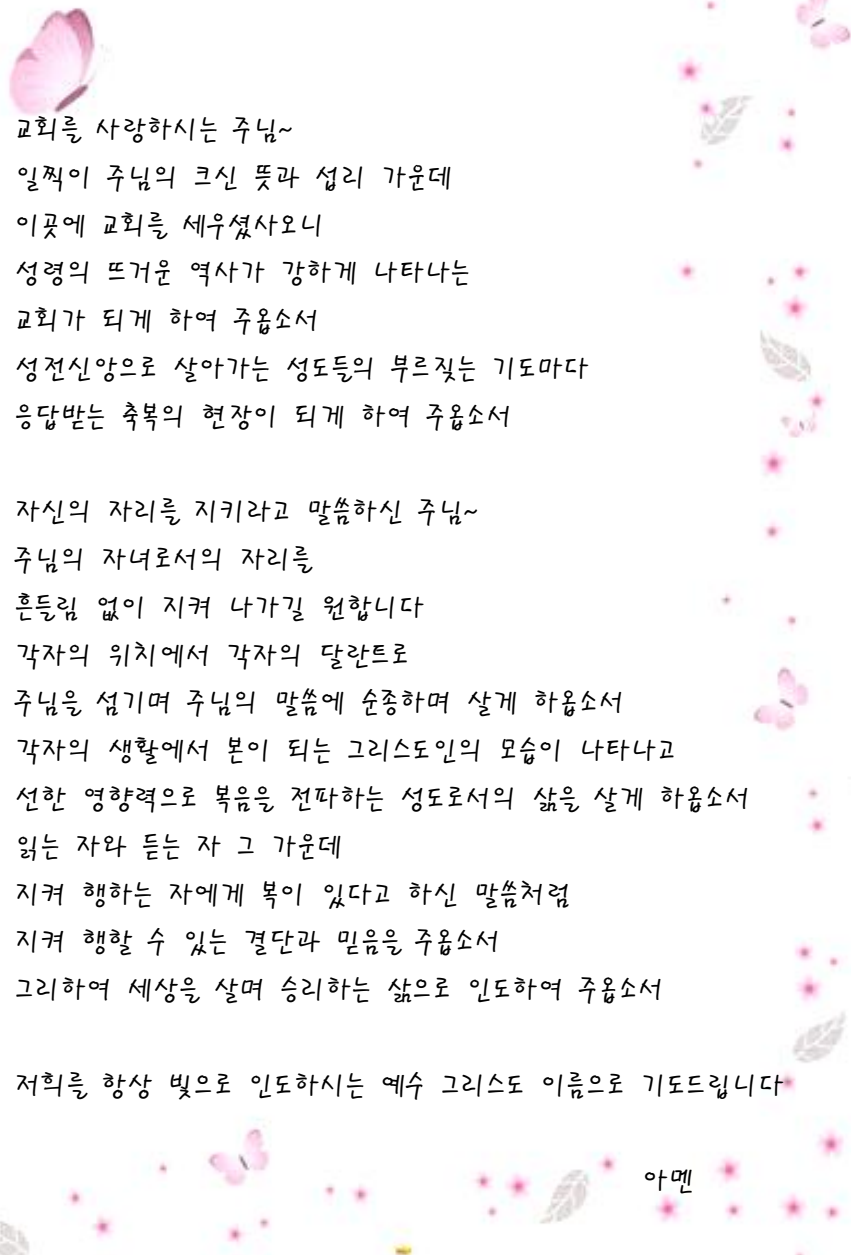
기도

인청자 집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녕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음을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지른
많은 잘못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
당진에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를 잠재워 주시고
모두가 철저히 개인 방역에 힘씀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보급 되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 되어 질 수 있도록 도라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의 일상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유로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활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이영선 집사

- * 오늘도 건강 주셔서 만보 이상 걷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 * 친정 언니, 오빠와 함께 고향에서 옛 추억을 밝으며
좋은 시간 보내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 * 주말을 주셔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주일을 지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평안한 마음으로 병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고
- * 좋은 주차 자리로 편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연우의 학교 가는 모습에서 엄마로서 안쓰러움을 갖게 해 주시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 많이 피곤했는데 낮잠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오랜만에 성전밧기가 아닌 기도회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올케 언니를 통해서 부족한 화장품 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연우가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망했다는 말이 안나와서 감사합니다.
- * 남편의 사업장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셔서 물질이 공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 매일 아침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 통화에서 밝은 목소리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신호를 초록 불로 바로바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 서울에 있는 딸내미 매일 잊지 않고 안부 전화 주니 감사드립니다.
- * 늦은 밤마다 연우와 성전밧기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명희 집사

- * 나의 힘들을 아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아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 무거운 식탁 의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하연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박영만 집사님의 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편하게 교회에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남편이 조리한 음식 맛있게 먹고 나서 칭찬까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 일찍 교회에 갈 수 있게 하셔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수요일예배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따라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 하연이 김치랑 밥 잘 먹으니 감사합니다.
- * 신랑을 통해 새 운동화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 * 뱃속이 좋지 않았는데 성단 청소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일상에서도 탈 없이 자리를 지켜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 오늘까지 길었던 치과 치료 잘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 설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성전밧기 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구역식구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 오랫동안 친구와 연락이 닿아 목소리 듣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 * 새벽 3시 넘어 잠들었으나 개운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 * 함께 식사하며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 *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 설교 동영상 듣고 볼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 * 피곤하지만 하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연이가 일찍 잠들어 나름의 경건한 시간을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요즘 농사철이라 가족리에
일이 많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틈틈이 새로운 퍼즐도전으로
이번에는 노아방주 퍼즐을
도전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맛있는 디저트와
아내표 카페라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박두식 권찰)



코로나로 인해
잠시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지원 설명을 듣고
봄 햇살이 좋아서
좋아하는 빵도 먹고
좋아하는 바다도 보고
사진도 한 장 찍어보았어요.
(송비정 집사)



이모 저모



이름이 하호이
입학식 마치고
점심식사 사진,
이름이 졸업식 사진,
그리고 이름이데 가정
찬양대 사진입니다
(민이삭 권찰)



코로나 땀씨 밖에도
잘 못가가는 우리 하연이
보로로 떡볶이 먹으며
좋아하는 하연이... ^^
가끔 산책도 한번씩 ~~
(장명희 집사)



민지라고 개원사
청명꽃 구경 다녀왔어요.
유일 인을 찾았네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김명숙 원찬)



봄맞이 성전 텃밭 일구는 중이에요.
물 매고 그곳에 각종 야채 모종
심을 계획이에요.
모종이 다다 풍성한 채소들을
볼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네요 ^^
(구독순 원찬)

직장을 그만둘 줄여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그터다보니 낮시간에 교회 안식터에
앉아 차 마실 시간도 생기고
좋으네요 ^^
(박성진 원찬)

튠그림 찾기 튠곳은 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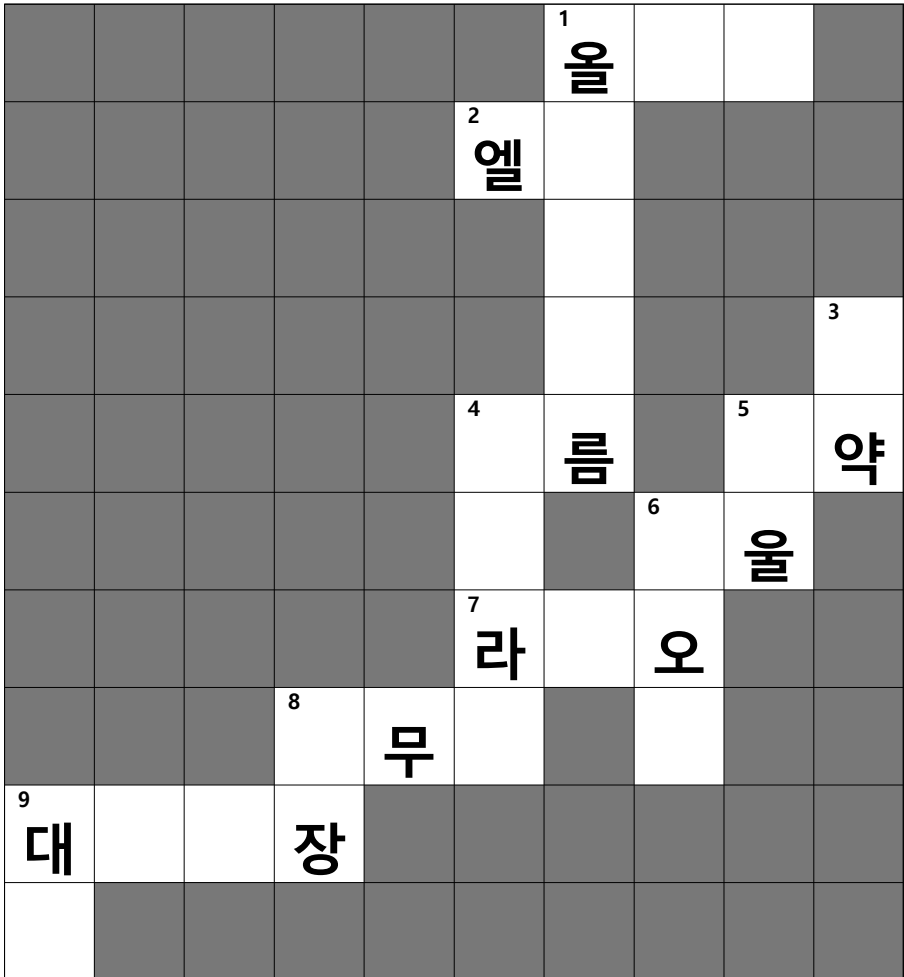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essay.100 -



* 마땅히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투님의 계획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 경 퍼 즐



가로

1. 제주도에 있는 둘레길이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도 좋겠지?
2.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은?

4.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의 00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단다.
5. 종이에 적어서 하는 약속은? ‘사랑의 00’이라는 노래도 있단다.
6.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7. 텔레비전은 화면으로 방송되지만 000는 소리만 방송되지.
8.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는 누구였더라?
9. 사무엘은 0000 엘리와 살면서 착하고 바르게 자랐단다.

세로

1. 올리브로 만든 기름, 상처도 치료하고 왕의 표시로 머리에 붓기도 했단다.
3.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붓는 올리브 기름에는 무얼 섞었을까?
좋은 향기가 나는 00을 섞었단다.
4. 사울과 다윗, 솔로몬 등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
5. 한국의 수도!
6.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등장하는 서유기의 주인공, 만화영화에서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 캐릭터로 나온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000처럼 못 알아들으면 안되지?
8. 회사의 주인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9.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에는 평사원, 00, 과장, 차장, 부장님의 순서로 직급이 있단다. 아빠 대신 운전해 주는 00 운전에도 쓰이는 말.

<지난호 정답>

					1	가	나	2	안										
					3	신	전		4	기	5	등							
				6	고	문						굴							
			7	약	속				8	블	레	셋							
	9	삼	손									차							
10	이	촌																	
	스																		
11	라	디	오	스	타														
	엘																		

가정의 달!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장마도 준비해야 하고 더위와의 싸움도 준비해야겠지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좋은 글 퍼다가 공유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그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아래 "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감동 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 간호사는 이 시를 '북 아일랜드'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의 크리스마스' 판에 실리게 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도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 부리는 늙은 할머니로?

왜 이렇게 음식을 질질 흘리고,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댁들이 좀 더 노력하기를 바랬답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 보이고,

스타킹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할머니로?

저항을 하든 말든,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먹이며'

하루종일 댁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늙은 할머니로?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꿈쩍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댁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댁의 의지대로 먹고 있는, 제가 누군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열 살'된 어린아이였을 땐,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열여섯' 꿈 많은 소녀였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스무 살' 땐, 신부가 되어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을 쳤었답니다!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서른 살' 여자가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 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들과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오십' 살이 되었을 땐,
다시 한번 손주들이 제 무릎 주위에서 노는 걸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들과 손주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이 찾아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날들과 사랑을 한 번 생각해 봤답니다.
전,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 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곳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의 속에는 아직도,
소녀 같은 마음이 살아 있어,
때론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기도 하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빨리 지나간,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 부리는 늙은 할머니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절" 봐 주십시오!



나이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단돈 6달러를 가지고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29살의 청년은 열심히 노력한 덕에 부자가 되었고, 77세가 되는 해에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줄곧 노인정에서 멍하니 지내던 그에게 한 봉사 요원이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했고, 화실을 찾아 10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든한 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 노인은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해리 리버만’입니다. 뒤늦게 발견한 그의



재능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백 한 살에 스물두 번째 개인전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103세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5세가 되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103세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는데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고(故) 강석규 박사님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이제 늙었다고, 원가를 시작하기엔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염두가 나지 않아서,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흥미가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시도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노년은 청춘에 못지 않은 좋은 기회다.” ‘해리 워즈워스 쿡펠로’

감사릴레이

이경애 집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짜증이 아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의 새 직장을 무리 없이 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상우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힘들텐데 꾸준하게 일 잘하며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우심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 인청자 집사



<감동적인 글>

당신의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2001년, 한 사업가가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또다시 215억의 재산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행한 기부로 역대 최고의 기부액을 기록한 이 사업가는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입니다.

정문술 회장이 카이스트에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의 집행을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돈을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정문술 회장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연구 발전이 안 되어서 우리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광형 교수가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고마움, 한평생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이광형 교수에 어쩌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그냥 전수해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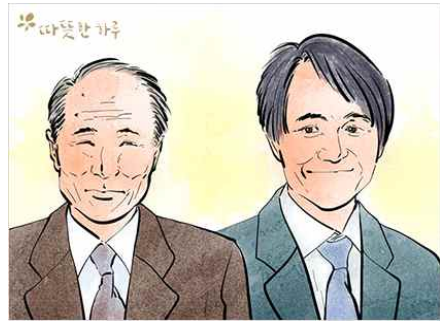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서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광형 교수는 정문술 회장의 기부금으로 IT+B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성실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100을 받았으면 80이나 90 정도를 베풀고 10이나 20 정도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100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빛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 바이런 -

영원히 죽지 않은 샘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의 샘물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군요.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이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먹으러 가려면 한가지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말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보 삼형제가 동굴까지 갔습니다.

큰 형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되”

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나만 살았다” 말하고 죽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안오자 동내 사람들이 이 동굴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동굴 안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 아저씨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말하고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장에 말에 모두 “예” 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유머>

넌.. 왜 친구가 없니?

어느 날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죄수 한 명을 앉혀 놓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야! 넌... 얼마나 평소에 싸가지 없게 굴었으면~

일 년이 지나도록 면회 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니?”

그러자 씹긋~ 웃음 띤 얼굴로 죄수가

“그 친구들 모두 다 여기 와 있다구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갈렙

뜻 : 개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으로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협력하는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은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간증을 남길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수 14:10).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땅에 보내어 정탐 할 때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땅에 정착하여 아낙의 소생 그 세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치고 그 거민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세벨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웃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맞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대등한 영적인 사람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앞세워 일하는데 마음의 불편이 없었고 여호수아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자리에서 불평 없이 만족스럽게 헌신하는 갈렙을 배워야 합니다.

▷교훈과 적용◁

첫째, 갈렙은 협력사역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을 포기함으로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둘째, 갈렙은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시사용어 Briefing

국내 인구 3명 중 1명 ‘MZ세대’

MZ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s)의 M과 제너레이션(Generation)의 Z가 합쳐진 말을 뜻합니다. 2019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1,422,507명 중 15~39세 MZ세대는 17,366,04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꼴입니다.

MZ세대 나이

M세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Z세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MZ세대 특징

M세대: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음

Z세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임

MZ세대 상징 키워드

다만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함

후렌드

‘Who+Friend’를 합친 말로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음

선택력

‘先취력’ 의미로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 촛불집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임

판플레이

‘놀이판+플레이’를 합친 말로 콘텐츠를 단순히 보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놀이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함

클라우드 소비

구매보다는 구독을 통한 공유의 개념으로 소유보다는 공유로 소비 밸런스를 맞춤

● 이달의 교회소식

1. 어린이주일 / 5월 2일
2. 어버이주일 / 5월 9일
3. 교사주일 / 5월 16일
4. 부부주일 / 5월 23일
5. 부부헌신예배 / 5월 23일 오후 5시

● 공지사항

1. 5월생활실천표어 / 더 복있는 사람이 되라
2. 5월 신앙서적 / 감사 '이찬수' 저
3. 교단총회 / 5월 17일~20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등록심방 / 육성민성도 - 5월 14일 오후3시
2. 군입대 / 한예성청년 - 5월 24일, 해병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